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5. 3. 11.(화) 07:00 ~ 22:00
- 상담건수: 793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방송 호평(2명)

-프로그램명 : 「인간극장」 ‘최전방 해녀, 조단비’

-방송일시 : 2025. 3. 11.(화) 1TV (07:50-08:25)

본인도 강원도 고성이 고향이다. 이날 방송에서 젊은 해녀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.

○ 방송 제언(2명)

-프로그램명 :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

-방송일시 : 2025. 3. 10.(월) 2TV (11:20-12:40) (재)

70대 시청자이다.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데, 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이 너무 호화롭게 지낸다. 본인이 출연자들과 비슷한 연령대인데, 본인의 지인들도 괴리감이 들어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고 말한다. 출연자들이 관광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모습 외엔 보여주는 게 없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5건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793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¹⁾	계
354	39	-	-	400	793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388	264	12	-	1	128	793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91	702	-	793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626	-	86	81	793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공사창립특집 2부작 리더」 - 재방송 요청 <p>【보 도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사사건건」 - 방송 제언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6시 내고향」 - 출연자 호평 ○ 「인간극장」 - 방송 호평 ○ 「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」 - 방송 호평 <p>【연예·오락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 - 방송 제언 <p>【라디오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가정음악」 - 진행자 호평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6시 내고향」 - ‘참외’ 연락처 문의 48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- ‘꼬막 구매’ 연락처 문의 21건 ○ 「아침마당」 - ‘출연자’ 연락처 문의 19건 ○ 「가요무대」 - ‘방청’ 문의 9건 ○ 「동행」 - ‘꿀 판매’ 연락처 문의 8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18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26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24건 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14건 ○ 「주차」 문의 2건 외 2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81건

1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편 성]	
재방송 요청	<p>○ 「공사창립특집 2부작 리더」 ‘2부’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3. 9.(일) 1TV (21:40-22:30) - 깜빡하고 방송을 놓쳤다. 본인은 나이가 많아서 홈페이지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.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보 도]	
방송 제언	<p>○ 「사사건건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3. 10.(월) 1TV (16:00-17:00) - 송영석 앵커가 점잖고 성품도 좋아 보였다. 계속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으로 교체된 것을 보았다. 송영석 앵커가 추후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을지 궁금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시사 · 교양]	
출연자 호평	<p>○ 「6시 내고향」 ‘뽕뽕이가 간다’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3. 10.(월) 1TV (18:00-19:00) - 항상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어 고맙다. KBS를 주로 시청하며, 그중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의 ‘뽕뽕이가 간다’ 코너를 좋아한다. 손헌수 씨가 방송을 재미있게 잘하며, 인기도 많다. 이날도 방송 중 꼬부랑 할머니가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, 손헌수 씨가 그 물건을 팔아주는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날뻔했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의견	세부내용
방송 호평	<p>○ 「인간극장」 ‘최전방 해녀, 조단비’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3. 11.(화) 1TV (07:50-08:25) - 본인도 강원도 고성이 고향이다. 이날 방송에서 젊은 해녀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방송 호평	<p>○ 「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3. 11.(화) 1TV (13:00-13:50) - 프로그램 재미있게 시청했다. 엄마들의 매운맛 떡볶이 회사가 궁금해졌다. 재료가 모두 국산이고, 프로그램 자체가 진실돼 보인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연예 · 오락]	
방송 제언	<p>○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 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3. 10.(월) 2TV (11:20-12:40) (재) - 70대 시청자이다.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데, 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이 너무 호화롭게 지낸다. 본인이 출연자들과 비슷한 연령대인데, 본인의 지인들도 괴리감이 들어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고 말한다. 출연자들이 관광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모습 외엔 보여주는 게 없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의견	세부내용
[라디오]	
진행자 호평	<p>○ 「가정음악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3. 11.(화) 1FM (09:00-11:00) - 9시부터 클래식 FM을 틀어놓는다. 신윤주 아나운서가 잔잔하고 예쁘게 진행을 잘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